

성탄절 후 첫 번째 / 송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AFTER CHRISTMAS

주후 2020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17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새 46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3번 계시록(Revelation) 21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삼서 (3 John) 12-8	신 웅 집사
-------------------------	--------------------	--------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7) – 진리 안에서”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the Truth)	김일선 목사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 앞에서 너무 무기력했고, 쉽게 죄와 타협했으며, 세상의 그릇된 방식을 좇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소서.”

아직도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직도 믿음과 삶이 하나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

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앞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3, 약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한글개역 요삼 13:4)

“It gave me great joy to have some brothers come and tell about your faithfulness to the truth and how you continue to walk in the truth.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NIV 3 John 1:3-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27 (주일)	12/28 (월)	12/29 (화)	12/30 (수)	12/31 (목)	1/1 (금)	1/2 (토)
본문	대하32	대하33	대하34	대하35	대하36	창1	창2
	계18	계19	계20	계21	계22	마1	마2
	슌14	말1	말2	말3	말4	스1	스2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행1	행2

송/구/영/신/예/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송구영신예배 (12/31 목 오후11:30)	“염려하는 우리를 위하여”(눅12:22-34)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2 토 오전6:30)	“오네시모를 위하여”(문18:22)

지난 주일(12/20)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6) – 기뻐함으로” (눅 1:46-55)

오늘 본문은 (일명)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교회력(Lectioary)에 따라, 대강절 네번째 주일마다 교회는 오늘본문을 읽어왔고, 라틴어로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의 ‘매그니피카트(Magnificat)’라는 특별한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 “계집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10세 초반의 미혼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눅1:46-47)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마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고 (눅1:48), 2)둘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며 (눅1:50), 3)셋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눅1:51-53). 특별히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며? 얼마나 불의가 판을 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배고픔이 큰 지? 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어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그리고 성탄을 고대하는 모든 곳에 이 귀한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